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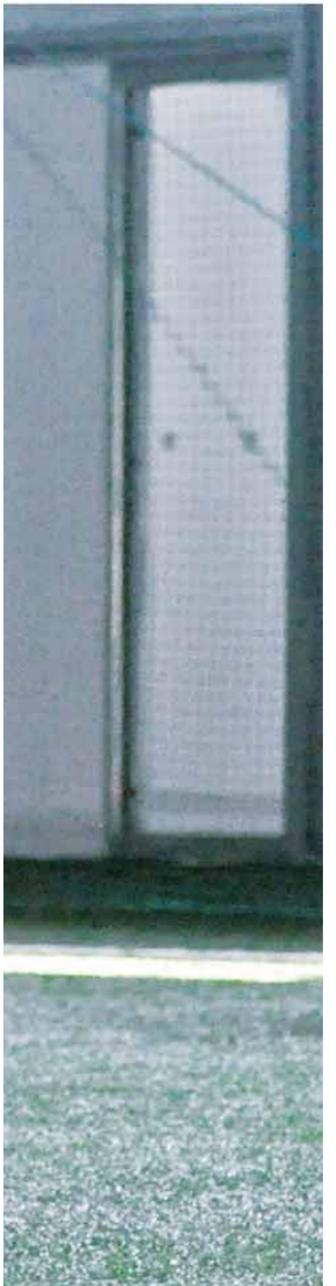
# 김선빈 “가을야구 하고 싶다”

재활 완료...2군 합류해 훈련 소화

“시즌 뒤 군 입대...4강 진출 힘 보낼 것”



KIA 내야수 김선빈이 이를 악물었다. 부상으로 아쉬움이 가득한 시즌이 됐지만 이대로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다. 김선빈에게 2014시즌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였다. 아시안게임이라는 목표도 있었고, 당찬 신인 강한울의 등장으로 새로운 경쟁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즌에 김선빈은 가장 부족한 성적을 썼다. 5월1일 오른쪽 허벅지 부상으로 엔트리가 말소되면서 시작된 부상 악몽. 김선빈은 복귀 한 달도 안돼 다시 오른쪽 허벅지 근육 부분 파열 부상을 당하면서 재활군으로 내려갔다. 30경기에 나온 게 올 시즌 김선빈 기록의 전부다. 김선빈은 ‘준비 부족’이었다고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봤다. 김선빈은 “준비가 부족했다. 캠프 때 어깨, 발목 등이 좋지 않아서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했다. 내가 부족했던 탓이다”고 언급했다. 급했던 마음도 지금 돌아보면 올 시즌 실패의 한 요인이다. 욕심 때문에 성급하게 준비를 하다가 부상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허벅지 부상으로 두 번째 엔트리가 말소됐던 김선빈은 복귀를 위해 처음 2군 타석에 섰던 날 다시 재활군이 됐다. 첫 타석에서 부상이 재발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은 오히려 길어지고 말았다. 김선빈은 “마음이 급했다.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복귀를 준비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올 시즌 부상이 제일 아쉽다”고 돌아봤다. 아쉬움은 남지만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은 갖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게 김선빈의 생각이다. 올 시즌이 끝나고 군복무를 하기로 마음을 정한 만큼 ‘가을야구’라는 마지막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각오다. “한 경기라도 더 뛰고 싶다. 팀이 4강에 들면 좋겠다”고 웃은 김선빈은 “일단 복귀해서 팀이 4강을 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족했던 만큼 남은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선빈의 재활은 끝났다. 김선빈은 2군 선수단에 합류해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오는 9월2일 한화와의 홈경기까지 퓨처스 리그 일정이 없는 만큼 당분간 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떠나겠다는 김선빈이 간절한 마음으로 9월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축구 대표팀 사령탑 4~5명 압축”

이용수 기술위원장



축구 대표팀 사령탑 1순위 후보였던 베르트 판 마르베이크(네덜란드) 감독과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차기 감독 후보군을 4~5명으로 압축해 협상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수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27일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KFA 제2차 봉사활동 ‘그라운드의 작은 나눔’ 행사에 참석해 “차기 사령탑 후보군을 4~5명으로 압축해 접촉에 나선 상태”라며 “10월에 예정된 대표팀 평가전에는 새로운 감독이 벤치를 지

킬 수 있도록 9월 내에 선정을 마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감독의 선정 기준을 조금 완화해 후보군의 범위를 확대했다”며 “4~5명의 후보군 가운데 협상이 빠르게 진행된 사람은 연봉 등 제반 조건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축구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가진 감독을 데려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언론에 나온 호르헤 루이스 핀토(콜롬비아) 감독은 애초 차기 사령탑으로 고려한 후보 중의 한 명이지만 축구협회 차원에서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며 “핀토 감독은 압축된 후보군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차기 사령탑을 뽑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다는 점도 암시했다. 그는 “명장을 모셔오면 좋겠지만 국가대표 감독이나 클럽에서 어느 정도 지도자로서 경험이 있는 분을 뽑으려고 한다”며 “기술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감독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분들은 연봉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한국 대표팀 감독 자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령탑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태”라며 “월드컵 예선부터 치러야 하는 점 등이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직 많은 감독이 ‘유럽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현직에 있지 않아도 유럽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대답을 한 감독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사령탑 선정 과정의 고충을 전했다. /연합뉴스

## 대학야구 8강 전쟁

28~29일 무등·챔피언스필드 송원대-동의대, 16강 첫 경기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가 16강 싸움에 돌입한다. 지난 22일 광주에서 개막한 제 48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1회전 승부가 마무리됐다. 27일 열린 세계사이버대와 우석대의 경기를 끝으로 16강에 진출한 팀들이 모두 가려지면서, 28일 무등경기장 야구장과 챔피언스 필드에서 8강 티켓을 향한 전쟁이 시작된다. 건국대를 제압하고 1회전을 통과한 송원대가 동의대와 28일 오전 9시30분 무등경기장에서 16강 첫 경기를 치른다. 오후 12시에는 부전승으로 대기하고 있던 인하대가 연세대와 맞대결을 한다. 시즌 4관왕에 도전하는 동국대는 오후 2시30분 경 남대와 8강행을 다툰다. 챔피언스 필드에서도 한 경기가 치러진다. 고려대와 영남대의 경기가 오후 12시 치러진다. 29일에는 성균관대-세한대(오전 9시30분), 홍익대-단국대(오후 12시), 경희대-한양대(오후 2시30분)의 16강전이 전개된다. 중앙대와 우석대는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 8강을 놓고 힘겨루기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부진 탈출’ 윤석민

38일만에 선발...3이닝 무실점

38일 만에 선발 등판에 나선 윤석민<산하>이 3이닝 3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미국 마이너리그 트리플 A 노포크 타이즈(볼티모어 산하)에서 뛰고 있는 윤석민이 27일 샬럿 나이츠(시카고 화이트 삭스 산하)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했다. 지난 7월20일 로체스터(미네소타 산하)전 이후 불펜으로 5경기를 소화했던 윤석민은 38일 만에 선발로 마운드에 섰다. 매 이닝 주자를 내보내고 3피안타 3볼넷을 허용하는 등 완벽한 피칭은 아니었지만 실점은 없었다. 1회 자렛 마헬에게 우전안타를 맞은 윤석민이 모이에스 시에라를 상대로 유격수 앞 땅볼을 유도하면서 병살타를 만들었다. 볼넷으로 다시 주자를 내보냈지만 3루수 땅볼로 1회를 넘겼다. 2회에도 선두타자 앤디 윌킨스에게 우익수 방면 2루타를 허용하면 위기에 몰렸지만 매트 데이비스를 상대로 첫 탈삼진을 수확했다. 두 타자를 연속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쉽게 이닝이 마무리 되는 것 같았던 3회. 연속 볼넷으로 2사 1·2루의 실점 위기에 몰린 윤석민이 윌킨스를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등판을 마무리했다. 3회까지 57개의 공을 던진 윤석민은 34개의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꽂아 넣었다. 3이닝 무실점으로 평균자책점은 5.75에서 5.56으로 낮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